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등산 약사암 편백나무 30그루 벌채

# “구청 예산들여 베다니...”vs “암자와 어울리지 않아...”

탐방객들 “공사중지 민원 넣었지만 목살” 불만 표출  
무등산사무소·동구청 “허가 얻어 배수로 확장사업”

광주시 동구가 ‘재해예방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약사암(암자) 주변 편백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동구와 벌채 허가를 내 준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려고 약사암 주변 배수로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벌채”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탐방객들은 “배수로에서 떨어져 떨어진 곳에 심어진 수십 년 된 편백

나무를 ‘외래수종이라 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암자 측 주장을 수용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구청이 앞장서 베어낸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동구에 따르면 무등산 약사암에서는 ‘약사암 석축정비 및 외래수종 수목 제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구가 재해 예방과 암자 내 문화재 보호(보물 600호 석조여래좌상)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원이

투입된다.

논란은 공사과정에서 수량이 30년 이상 되는 편백나무 27그루와 아카시아 등 모두 30그루의 나무가 무단기로 베어진 채 나뒹구는 장면을 탐방객들이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국립공원에서는 떨어진 도토리도 함부로 주워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될 정도로 자연자원 보호가 핵심 가치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동구가 예산까지 들어가며 나무를 베어낼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벌채된 나무를 보고 무등산국립공원과 약사암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배수로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편백나무, 아카시아나무가 사찰과 어울리지도, 국

립공원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한꺼번에 잘라내게 됐다”는 답변을 들은 탐방객들은 “공사 중지를 위한 민원까지 넣었지만 목살됐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동구청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약사암 측은 암자 주변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낸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썩독 잘린 나무 밑동 위에 시퍼런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벌채가 이뤄진 사실 자체를 감추고 있다”며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정당한 벌채라면 감출 이유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사를 발주한 동구는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무등산사무소)과 협

의한 후 벌채 허가까지 얻고 진행한 사업으로서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 나무 소유자인 약사암 측도 벌채를 원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탐방객들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도 “국립공원이지만 사찰 소유 나무인데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고 그 대상도 외래수종이라서 강력한 반대를 표시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무등산을 아끼는 시민들 정서를 고려해 추후 외래수종 제거 사업을 할 경우 탐방객 여론 수렴 등 절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달 말 무등산 국립공원내 약사암 진입로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베어낸 나무를 옮기고 있다. 작은 사진은 베어낸 나무 밑동 위에 나뭇잎과 가지들을 덮어놓은 모습



〈독자제공〉

## 나주 출신 윤명성 경무관 승진 ... 광주·전남 유일

광주청 2부장으로 내정

광주청 1부장은 김재규

나주 출신의 윤명성(51)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유일하다. 총경 승진자는 광주와 전남 경찰청에서 각각 2명씩 배출했다.

경찰청은 5일 ‘경찰의 별’인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16명을 비롯해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6명을 함께 발표했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윤명성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총경에서 경무

관으로 승진, 광주청 2부장으로 내정됐다. 윤 부장은 목포 문태고와 경찰대 법학과(47기)를 나와 연세대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원 범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 화순서장, 서울 202경비단장, 종로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다.

광주청 1부장에는 고흥 출신의 김재규(순천고·경찰대 27기) 경무관이 내정됐고, 전남청 1부장에는 김준철 보청 경비과장이 승진해 경무관 첫 보직을 맡는다.

이밖에 진도 출신의 허경렬(광주송일고·전남대 법대·간부후보 35기) 인천청 1부장이 서울청 보안부장으로, 함평 출신

의 양성진(광주살레시오고·경찰대 17기)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경기남부청 1부장으로, 목포 출신의 장하연(문태고·경찰대 57기) 전주완산서장이 전북청 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자를 각각 2명씩 배출했다.

광주청에서는 유주현 정보3계장과 문병훈 북부서 생활안전과장이, 전남청에서는 임태오 정보3계장과 김현식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이 경쟁에서 총경으로 승진임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보성군청·군수 비서실 압수수색

군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관련해 비서실을 비롯한 보성군청을 압수수색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오후 보성군청 비서실을 비롯해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군수 자택 신축과 보성군이 발주한 보성차발 빗축제 공사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25일 자택 신축 용지를 헐값

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 정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토지를 헐값에 판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과 건축비용을 낮게 산정한 임자 박모(63)씨, 지역 정당인, 공무원 등 9명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중순께에도 보성군청 간부 A씨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보성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법정 거짓말’ 사범 엄단

광주지검 33명 적발 1명 구속기소

검찰이 ‘법정 거짓말’ 사범을 엄단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이는 사범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올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 청각장애인 신도에게 위증을 교사한 특정 종교지도자 A(54)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집중 단속을 벌였다. 또 공판 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 이익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종교지도자 A씨는 남신도 B(47)씨와 공모, 2015년 10월27일 여신도이자 청각장애인인 C(53)씨에게 법정에서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의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사건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내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했다’고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거짓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색출·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위증 범행에 이르도록 한 교사범까지도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만취 20대 구급대원 때리고 난동

○~술에 취해 길가에 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119구급대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9)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인근을 지나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박모(35)씨 등 2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구급차 내부 의료시설 등을 파손한 혐의.

○~김씨는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자고 있던 자신을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 깨어나 보니 구급차 안이어서 놀라 소란을 피웠다”고 때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 담양, 금성면 토지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 외 13필지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시세 33억, 매매 - 협의

#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